

제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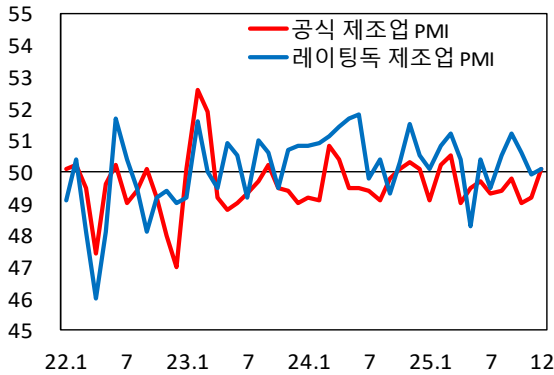
중국 12월 제조업 PMI 상승

1. 12월 PMI의 주요 특징

□ (제조업 PMI) 12월 제조업 PMI는 50.1로 전월(49.2)보다 0.9p 상승하면서 9개월만에 기준치(50)를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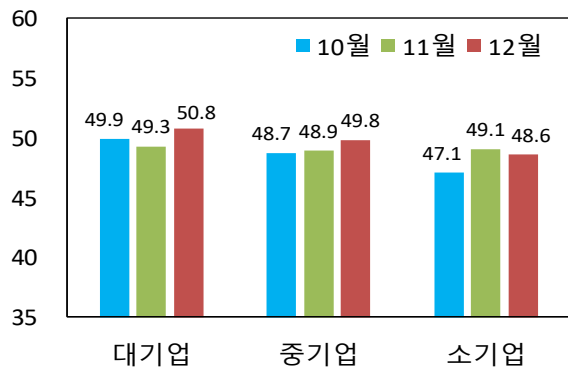
○ 규모별로는 소기업(11월 49.1 → 12월 48.6)은 다소 하락하였으나, 대기업(49.3 → 50.8)과 중기업(48.9 → 49.8)은 상승

제조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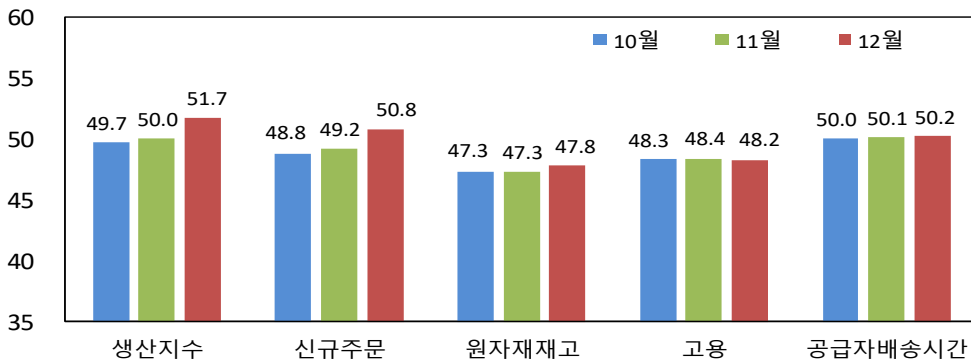
기업규모별 제조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○ 세부 항목별로는 고용(11월 48.4 → 12월 48.2)이 다소 하락하였으나, 생산(50.0 → 51.7), 신규주문(49.2 → 50.8), 원자재재고(47.3 → 47.8), 공급자배송시간(50.1 → 50.2)은 상승

구성항목별 제조업 PM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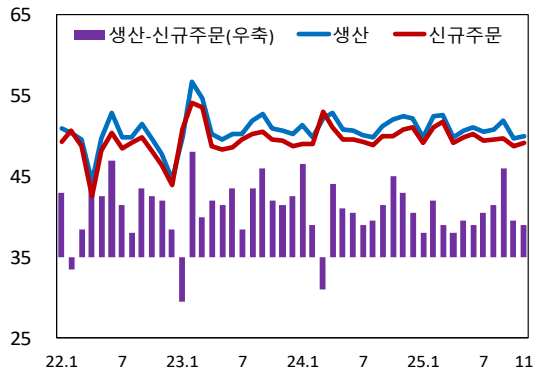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— 공급으로 해석가능한 **생산지수**와 수요로 해석가능한 **신규주문지수** 간 **차이**는 **소폭 확대***

* 생산지수 - 신규주문지수: (8월) 1.3 → (9월) 2.2 → (10월) 0.9 → (11월) 0.8 → **(12월) 0.9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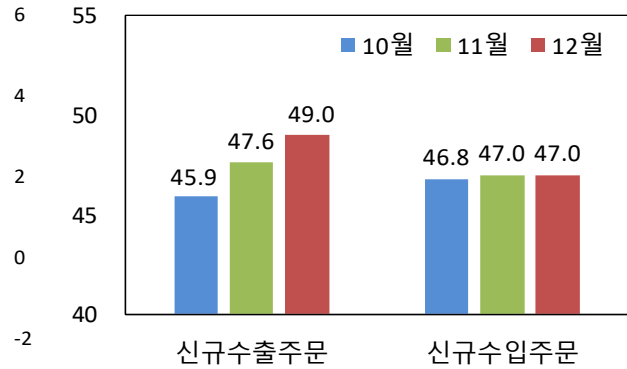
— **신규수출주문**(11월 47.6 → 12월 49.0)이 **크게 상승**한 가운데, **신규수입주문**(47.0 → 47.0)은 **전월과 동일한 수준**을 유지

생산 및 신규주문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수출입 관련 PM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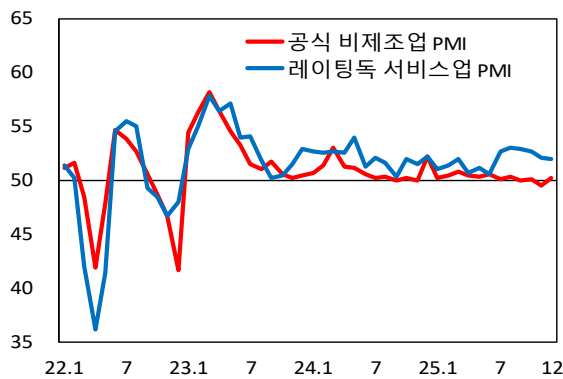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□ **(비제조업 PMI) 12월 비제조업 PMI도 50.2로 전월(49.5)에 비해 상승(+0.7p)**

○ **서비스업**(11월 49.5 → 12월 49.7)은 소매업, 외식업 등이 약세를 보였으나, 화폐 금융·자본시장 서비스 등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월에 비해 **상승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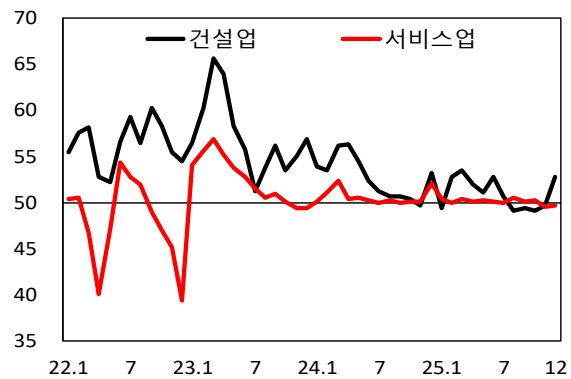
○ **건설업**(49.6 → 52.8)은 일부 남부지역의 양호한 기상여건, 연말 투자 관련 활동 가속화 등으로 전월에 비해 **큰 폭 상승**하면서 5개월만에 기준치를 상회

비제조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건설업 및 서비스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□ **(종합 PMI) 12월 종합 PMI*(50.7)는 전월(49.7)에 비해 상승(+1.0p)**

* 제조업 생산PMI와 비제조업 PMI의 가중치 합으로 산출

2. 시장평가 및 전망

□ **중국 제조업 PMI**는 수출 개선, 기업의 생산활동 확대 등에 힘입어 9개월만에 기준치를 상회하였으나, **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**

○ **제조업 PMI**는 수출이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, 원단(元旦, 1.1~3일) 및 춘절(2.15~23일) 연휴를 앞두고 기업들이 생산을 확대하면서 상승하였으나, 2026.1~2월 제조업 PMI는 춘절 연휴 등으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*

* 2015년(춘절 2.19일) : (14.12월) 50.1 → (15.1월) 49.8 → (2월) 49.9 → (3월) 50.1
2018년(춘절 2.16일) : (17.12월) 51.6 → (18.1월) 51.3 → (2월) 50.3 → (3월) 50.4

— 내수 측면에서는 신규수입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, 소비시장과 밀접한 소기업 생산이 하락하고, 고용지수도 낮아짐에 따라 약세가 지속

— 재고의 경우 생산·신규주문지수 상승에 따라 구매량과 완제품 재고가 늘어났으나, 내수 부진으로 기업들의 재고 증가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는 불확실

* 구매량 PMI : (8월) 50.4 → (9월) 51.6 → (10월) 49.0 → (11월) 49.5 → **(12월) 51.1**
완제품 재고 PMI : (8월) 46.8 → (9월) 48.2 → (10월) 48.1 → (11월) 47.3 → **(12월) 48.2**

○ **가격지표***는 원자재구매가격 PMI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, 출하가격 PMI도 2개월 연속 개선

* 원자재구매가격 PMI : (8월) 53.3 → (9월) 53.2 → (10월) 52.5 → (11월) 53.6 → **(12월) 53.1**
출하가격 PMI : (8월) 49.1 → (9월) 48.2 → (10월) 47.5 → (11월) 48.2 → **(12월) 48.9**

— 시장에서는 가격지표의 개선이 향후 기업 수익성, 생산자물가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

○ **비제조업 PMI**는 중국정부의 투자 안정화, 서비스 소비 진작, 증시 활성화 등 정책지원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, 특히 소비·고용과 밀접한 서비스업의 개선이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

□ **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**가 이어지는 가운데, 향후 **구조적 정책금융수단, 지방정부 재정지원 강화, 부동산 시장 안정화*** 등의 정책 효과에 주목할 필요

* 최근 중국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.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개인 보유 2년 미만 주택 매도시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5%에서 3%로 인하(26.1.1일부터 시행)하기로 결정(25.12.30)한 가운데, 새해 첫 날 중국공산당 공식 이론지인 《구시(求是)》지에 '부동산 시장 기대감 개선 및 안정화(改善和穩定房地产市场预期)' 기사가 게재(26.1.1)